

# DMZ 평화순례 소감문

2208

김찬희

DMZ 평화순례를 한다고 하였을 때부터 꽤나 관심이 많았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통일에 대해 교육을 받으며 통일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고 우리나라가 분단이 된 이유가 6.25 전쟁에도 관련이 있는데 친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하셨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다. DMZ 평화순례에 지원하고 통일에 더욱 알아보고 분단의 아픔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나 이런 것들을 알아보게 되었다. DMZ 평화순례 일정 전날 비바람이 거세다는 날씨 소식을 접하고 많은 걱정을 하였지만 무사히 일정을 소화하는데 문제는 없었다. 철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는 영화를 보았는데 '쉬리'라는 영화였다. 그 영화에서 최민식이 하는 대사 중에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니들이 한가롭게 그 노래를 부르고 있을 이 순간에도 우리 북녘의 인민들은 못먹고 병들어서 길바닥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어. 나무껍데기에 풀뿌리도 모자라서 이젠 흙까지 파헤쳐 먹고 있어."라고 한 대사가 기철원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는 이야기 같은 간단한 이야기를 들었다. 또 남과 북이 분단이 된 지 647016시간이 된 지금 우린 분단의 현자에 와 있다고 말하신 것도 굉장히 소름이 끼치게 하였다. 우리는 노동당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민통선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논이 많았고 교회같은 건물도 있고 여러 건물들이 많이 있었다. 먼저 국경선통일학교를 방문하였다. 거기서는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같은 통일에 대한 여러 교육을 받았는데 먼저 철원은 6.25 전쟁 당시 싸움이 가장 치열하였다고 하였다. 또 여러 폭격으로 인해 도시가 평야가 되었다고 하였다. 남과 북이 분단이 되고 이름이 달라지게 되었는데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되었고 남한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이 되었다. 북한의 이름은 좀 어렵지만 초등학교 때 배운 기억과 저번에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아 완전히 기억하게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남과 북을 부를 때 북조선, 남조선 이라고 부르고 대한민국에서는 북한, 남한이라고 부른다고 하였다. 하지만 북과 남이 만났을 때는 북조선, 남조선이라고 부르는게 맞다고 하였다. 또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이야기도 하였는데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판문점에서 만나 남과 북을 쉽게 오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며 저렇게 왔다갔다 하는 것은 참 쉬운 일인데 통일이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며 안타깝다고 하셨다. 또 교육을 받으며 여러 정보를 새롭게 알게 되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함경도에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 문재인 대통령이 함경도에서 태어났다면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 남한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꽤나 놀라운 정보였고 뭔가 신기하였다. 또 내 또래와 성인들에게 통일에 대한 의견조사를 하였는데 10명 중 8명이 통일을 하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가 더욱 발전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동의 하였다고 한다. 이 이야기를 듣고 꽤나 충격적이었다. 어릴 때부터 내 주변 친구들도 통일을 하기 싫다는 친구들이 있긴 했었지만 이렇게 까지 심각한 줄 몰랐기 때문이다. 너무나 물질 만능주의적인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여 슬픈 기분까지 들었다. 이런 사람들에게 통일의 이로운 점을 이야기 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통일의 장점을 말해주셨는데 북한에는 지하자원이 많고 남한에는 높은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이 융합되면 통일을 하였을 때 지금보다 더욱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 현재 남한은 쌀이 너무나 많이 재배되어 버리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하지만 북한에는 식량이 없어 굶어죽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도 하셨다. 이러한 점 뿐만 아니라 분단이 되며 이산가족이 너무나 많이 생긴 것도 통일이 되면 해결이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다. 여러 사람들이 통일에 대해 더욱 알아보면 좋을 것 같다. 내가 생각하기에도 통일이 되면 여러 방면에서 나라가 더욱 발전할 것 같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나 실업률이 줄어든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여러 사람들이 통일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을 고치면 좋을 것 같다. 국경선통일학교에서 여러 교육을 들은 후 평화전망대에 방문하였는데 철원, 민통선에 대한 영상을 보며 그 곳에 대해 더욱 잘 알게 되어 좋았다. 또 망원경으로 북한 쪽을 자세히 볼 수 있었고 선생님들이 말하신 백마고지와 같은 곳들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좋았다. 1층에는 분단의 역사와 관련된 글이나 자료들이 있었고 땅굴 모형이 있어서 이해하기 쉬웠다. 평화전망대 견학을 마치고 소이산 등산을 하였는데 등산할 때 침묵하며 국가와 통일이나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자고 하였는데 조금은 힘들긴 하였지만 조용히 걸으며 자연을 더욱 생각하게 되었고 여러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정상에서는 정말 상상한 것 이상으로 대단한 풍경을 볼 수 있었고 정말 민통선 안에 있는 것들이 한 눈에 들어와 정말 기분이 신기하였다. 소이산에서 하산한 후 정읍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축구를 보며 모두 한마음으로 응원하였고 친구들이랑 사진을 보며 다시 그 장소를 기억하며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좋았다. DMZ 평화순례를 통해 통일에 대해 알지 못한 점들을 더욱 많이 알게 되었고 통일의 이로운 점이나 철원이라는 지역은 어떠한 지역인지 또 그 곳에서 근무를 서는 군인들을 보며 대단히 멋지고 감사하였다. 왕복 10시간이라는 힘든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은 점을 배우게 되어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